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 실내체육관 건립 보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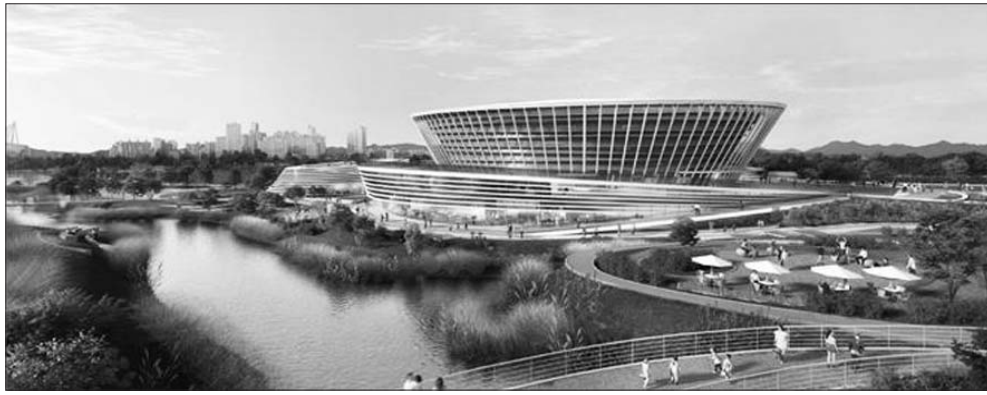
전주시, 육상경기장 · 보조경기장 · 야구장 · 실내체육관 위치 · 면적 등 세부설명 · 조성계획 논의

전주시는 2일 전주시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승섭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최신희 전주시 총괄조경건축가,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복합스포츠타운 조성계획 및 실내체육관 건립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장동 월드컵경기장 일원을 복합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려는 진행상황에 대한 (유)어반플랜의 보고가 있던 뒤 지난해 11월 실내체육관 건축설계 공모에 선정된 (주)행림건축사사무소의 실내체육관 설계용역 착수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복합스포츠타운 조성계획 보고 시간에서는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스포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육상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의 위치와 면적, 비율, 건축면적 등에 대한 세부설명 등이 이어졌다. 또 실내수영장과 생활체육공원 등 시민들의 생활스포츠 공간 구축을 위한 토지 매입 등 구체적인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은(蘊)경(景)'이라는 주제로 설계공모에 선정된 (주)행림건축사사무소는 복합스포츠타운과 조화롭게 배치될 실내체육관의 건축



전주시는 2일 전주시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승섭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최신희 전주시 총괄조경건축가,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복합스포츠타운 조성계획 및 실내체육관 건립 보고회'를 개최했다.(복합스포츠타운 조감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종합스포츠타운의 보행흐름과 차량동선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장애인 접근성, 경제성, 안전성, 편의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실내체육관은 프로농구 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인 만큼 고양, 원주, 안양 등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 시설계획에 대한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주 복합스포츠타운은 오는 2024년까지 부지면적 약 64만 7,000㎡ 규모에 실내체육관과 육상경기장, 야구장, 경륜장 등이 들어서는 게 핵심이다. 이 중 실내체육관은 대지면적 약 2만1,000㎡, 연면적 1만4,900㎡, 지하1층, 지상3층, 관람석 6,000석 규모로 농구와 배구, 배드민턴 등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시설로 오는 2023년 조성된다.

최라기 전주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실내체육관이 신축·이전되면 시민과 농구팬들이 전국 최고 수준의 경기장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프로농구를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을 통해 지역의 스포츠산업과 시민들의 체육복지, 건축도시로서의 위상을 함께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출근길 횡단보도서 펼쳐지는 예술공연

전주시, 17일까지 주요 교차로서 '비대면 아트 공연' 진행

전주시가 출근길 횡단보도에서 펼쳐지는 예술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활력소를 제공한다.

시는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출근 시간에 종합경기장 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비대면 아트 공연'을 선보인다.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켜지는 25~40초를 활용, 8명의 청년 무용수들이 선보이는 이 공연은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지역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2일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진행된 첫 공연에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주제로 한 예술 공연이 펼쳐져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시는 ▲종합경기장 사거리(9, 17일) ▲도청 앞 효자로 횡단보도(3, 10일) ▲명주골 네거리(4, 15일) ▲꽃밭정사거리(8, 16일), ▲서부신시가지 스타벅스 사거리(4일, 퇴근길) 등에서 공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연시간은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50분까지다.

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뿐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미라, 동상 등을 만나볼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과 추억의 노래와 안무가 펼쳐지는 '레트로 7080' 공연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시민을 위로하고 경기침체로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창 밖의 아리아, 희망을 보다' 예술공연을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중소기업 용자지원 28억원 추가 투입

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용자지원 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

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지원 사업'을 2차로 접수한다. 이는 지난 2월 중소기업에 79억원 규모의 용자를 지원한 데 이어 추가로 28억원을 투입키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지원 사업은 시가 용자지원 추천을 한 기업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용자한도액은 업체당 최대 3억원(운전·창업자금) 지원된다. 용자(이자보전) 기간은 2년(1년 연장가능)이며, 협약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 중 일반기업에는 3%까

지,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기업, 바이전주 업체, 우수항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는 3.5%까지 이자가 보전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류를 지참해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분과 3층에 있는 기업지원사무소(063-281-2945, 2068)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용자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용자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시중 9개 금융기관(전북, KB국민, 신한, IBK기업, KEB하나, KDB산업, 우리, NH농협, 수협)에 2개월 이내에 용자를 신청하면 된다. 단,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동조합으로, 신청 이전에 대출 신청은행과 자금대출 상담이 필요하다.

/김윤상 기자

'숲은 늘리고 쓰레기는 줄이는 시민이 행복한 전주'

전주시, 정원 · 청소 분야 4대 역점시책 제시

전주시가 도시바람길숲과 미세먼지 차단숲,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녹지공간 구축에 주력하고, 버려지는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재활용센터 '다시 봄'을 운영해 재활용 선도시로 나아가기로 했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시는 2일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신년브리핑을 통해 '숲은 늘리고 쓰레기는 줄이는 시민이 행복한 전주'를 비전으로 정원·청소 분야 4대 역점시책을 제시했다. 4대 역점시책은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정원도시 구축 ▲시민들이 찾고 싶은 쾌

적한 공원녹지 구현 ▲자원 순순환 체계 구축 및 시민안전 강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 청소행정 추진 등이다.

시는 우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지속가능한 정원도시 조성에 공을 들인다. 이와 관련, ▲도시 바람길숲 ▲혁신도시 미세먼지 차단숲 ▲지방정원 ▲꽃거리 등을 도심 곳곳에 조성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동시에 시민과 관광객에게는 편안한 쉼터로 제공키로 했다.

오는 6월에는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주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한다. 전시장과 도시공공정원, 초정정원 등 70여 개의 정원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 초록정원을 양성하고 정원특강을 열어 시민 스스로 가

꾸는 정원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이 찾고 싶은 쾌적한 공원녹지를 구현하고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주력한다. 총 249개의 공원에 있는 수목과 편의시설을 쾌적하게 관리하는 한편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등산로 정비, 숲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연화정 재건축 등 오는 2024년까지 덕진공원을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자원 순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로 만들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버려지는 폐기물을 가치 있는 상품으로 재탄생시킬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 봄'을 본격 운영한다. 또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기존 60톤에서 130톤으로 2배 이상 증설해 폐기물 처리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시청과 양 구청으로 이원화한 청소행정도 시민 눈높이에 맞게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청소민원 대표전화번호(063-281-8500)를 구축하고, 청소민원 원스톱 전산처리 체계도 도입키로 했다. 또 청소 취약지역과 공한지의 적치쓰레기를 정비하기 위해 가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고, 불법투기 포상금제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분리수거할 노인일자리에 500명을 투입하는 환경깨끗이 사업도 적극 진행한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2021년은 전주시 정원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자 자원 순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의 해"라며 "도심 녹지공간 구축 및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 개량사업 추진

전주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한다.

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총사업비 4억1,200만원을 투입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90개 동을, 지붕 개량 17개 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는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에는 지붕 철거에 최대 344만원, 지붕 개량에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주택 거주자 및 소유자로, 사업 신청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현장 사진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5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